

己未獨立運動小史



殉國堤岩武拾九先烈斗二遺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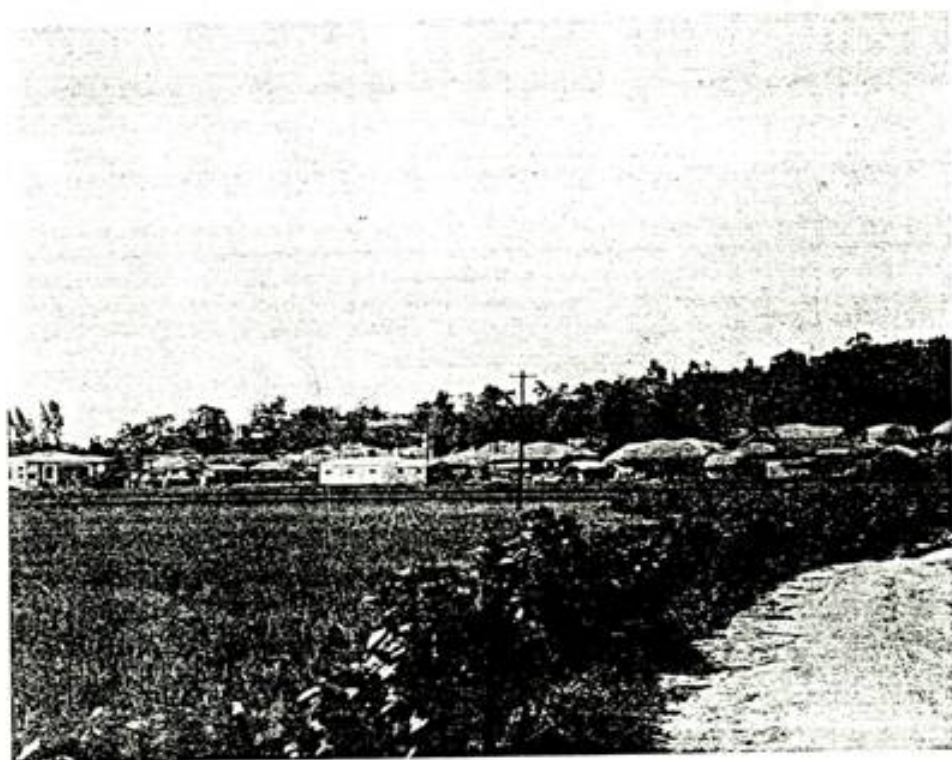
3·1獨立運動 當時 提岩教會堂에 放火殺戮하는
慘劇이 일어났던 곳에 세워진 紀念塔

殉國堤台二十九吳烈遺旗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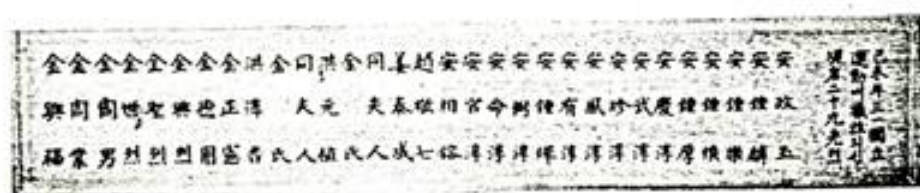
(韓甲洙先生 揮毫)

寫眞說明

- 一、本畫報中第七號第八號는 解放前釜山市東光洞에 居住하다 八・一五 解放이되자 逃亡한 "森虎"라는 日本人이 所藏하였던 "遺物"에서 發見된것으로 그寫眞說明에 依하면 "三・一獨立運動當時 水原에서 일어났던 事件"이라고 記入되어 있었다고 한다.
- 二、推測하지만 倭軍警들은 堤岩教會堂에 放火殺戮事件當日 教會堂內에 監禁했던 三〇名中 盧慶泰一人만 脫出에 成功하고 其他四人은 칼로 찌르고 銃을 쏘아 죽인後 "작부"로 斬首하였다.
- 三、堤岩里教會堂放火殺戮事件이 끝난후 倭軍警들은 바로그길로 附近인 古洲里로 달려가서 金興烈等 六人을 맞잡고 結縛지어 뒷산으로 끌고가서 銃殺後 칼로 斬首하였다.
- 四、極惡無道한 倭軍警들은 如斯한 手法으로 우리 愛國志士들을 銃으로 쏘아 죽이고 칼과 작부로 斬首하여 廣場에다 展示陳列까지 하였으며 自己上官들에게 잘보여 後日의 榮轉을 꿈꾸어 紀念攝影까지 하였던것으로 엿보인다.



3·1 獨立運動當時 全燒되었던 堤岩里 平陵바위
동네의 지금의全景



殉國堤岩 20先烈名單懸板 (韓甲殊先生 揮毫)



3·1獨立運動當時 提岩里 敎會堂에 放火殺戮
事件 現場을 찾아간 스코필드博士에게 倭警은
“무엇하러 왔느냐?”고 대들고 있다.
(스코필드博士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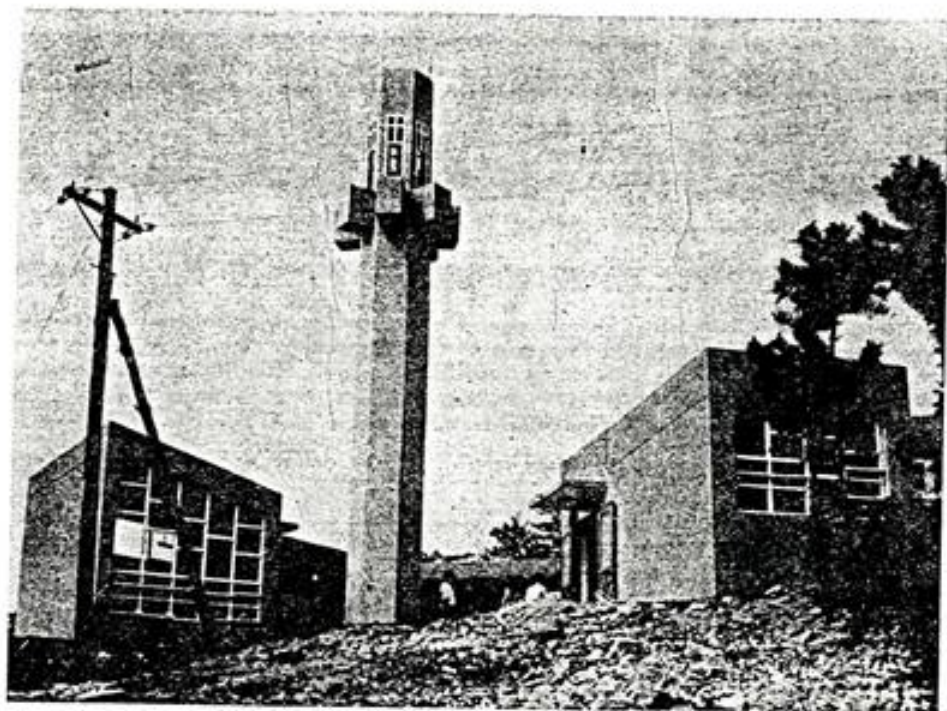
3·1獨立運動當時 倭警들은 우리愛國志士들의
生命을 草介같이 여겨 踏치는데로 銃殺한後 卽
斬首하여 陳列까지 했던것이다.



보라! 이 끔찍한 光景을...
우리 愛國志士들을 銃殺한後 그 屍體를 끌어다가
「작두」로 斬首하였다.



堤岩里敎會堂에 放火殺戮한事件에 關한 新聞記事



殉國堤岩20先烈 紀念教會堂（東京謝罪委員會 寄贈）



殉國堤岩 20先烈 紀念館（東京謝罪委員會 寄贈）

殉國先烈略史

—水原堤岩里、古州里、發安里殉死事件—

一、堤岩里集團虐殺事件

一九一九年 四月十五日 (陰三月十五日) 午後二時半頃

倭軍中尉가 引率한 倭兵一個中隊三〇餘名이

倭營 趙熙彰과 倭人佐板을 先頭로 堤岩里에

到着. 民衆에게 訓示할 일이 있다고 告지어

基督教信者와 天道敎信者들 三十餘名을 敎會

堂에 모이게하고 밖에서 窓門마다 큰 木을 박

아 밖으로 도망나오지 못하게한 다음 倭兵一

個中隊로 하여금 堤岩里部落을 完全包圍한
後 敎會堂을 向해 一齊히 無差別 銃撃을
加하였다

一時에 숨막히는 慘變을 當한 死者 三十
餘名은 死力을 다해 밖으로 나옴을 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 大部分 無慘히 숨을 거두었다

그런 中에도 勇敢히 最後의 힘을 다해 敎
會堂 壁을 破하고 밖으로 脫出한 金正憲、
盧慶泰、安慶淳、等은 發見한 倭兵들은
蜜刀를 휘둘러 死으로 차마 볼 수 없음을

程度로 亂刀질을 하여 죽었다

倭兵들은 教會堂內에 監禁된
사람들이 죽음을
확실히한 後 곧 뒤이어 石油를
教會堂內外에
多量으로 붓고 불을 질렀다

이날 三十餘名이 銃에 맞고 불에 타고 칼에
질려 죽어 가는 現場에서 盧慶泰 一人만이
九死一生으로 脱出에 成功하여 목숨을 救하였다

그런가하면 사랑하는 男倭인 教會堂안에 監禁
되어 銃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急報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洪元植夫人 金氏에게 倭兵

들은 不問曲直 銃을 들며 대고 마구 쓰아 現場
 에서 卽死하게 하였고、當時 堤岩敎會 傳道師였
 던 姜泰成 亦是 敎會堂內에 監禁되어 銃殺되
 었다는 急報를 듣고 달려온 姜泰成夫人 金氏는
 三代獨子인 男使이 非命에 갔음을 시러워하며
 痛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倭兵들은
 임에 닿지 못할 辱說을 마구 퍼부으며 蠻力
 를 휘둘러 現場에서 목을 잘라 죽이고 屍體
 위에 짐단을 얹고 불을 질렀다
 또 한가지 天人共怒할 일은 이런데도 안고

禮拜堂 안에 監禁되어 있다가 차마 어린
것마저 죽음을 當하게 할 수 없이 안고 있
던 어린애를 窓 밖으로 내보내면서

「나는 죽지만 이 어린 것만은 살려달라」
하며 피매친 哀願을 했으나 倭兵들은 死에
굶주린 이리떼마냥 이 또한 긴 칼로 찢러
죽이고야 말았다.

그들은 敎會堂에 불을 지르기도 무엇이었나
하였는지 三十餘戶 全部落에 불을 질러 和平
하고 조용하던 幸福한 이 堤岩里 마을은 삼시

간에 生地獄으로 化해 버렸다

불은 滿 五時間이나 繼續해서 탔다

草家집이 大部分이었건 堤岩里 마을 全体를
태운 煙氣와 재는 三十餘名의 生靈을 태운 惡
臭와 함께 때마침 불어오는 强風에 날려 三十餘里
밖의 사람들까지도 놀랄 程度였다고 只今도 附近
洞里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當時 서울에서 이 消息을 傳해 들은 美國宣
教師 스코필드 博士는 이를 後인 四月十七日 慘禍
의 現場을 踏査하여서 情況을 살폈다

이때 倭將들은 스코필드 博士에게 “무엇하러
왔느냐”고 嚴重한 審問을 했으나 스코필드 博士
는 泰然한 語調로 “나는 캐나다 宣教師로서 오늘
수촌리 敎會에 다녀가는 길에 暫時 이곳에 들렀다.”
고 시키미를 떼며 倭將들의 눈을 避해 가면서 堤
岩里 敎會堂 燒打殺 現場의 寫眞을 찍어 日兵들
의 殘虐한 行爲에 對한 報告書를 作成하여 本
國에 發送하였다

또다른 外國 宣教師들도 이에 同調하여 日帝의
殘虐相을 調査한 後 各自 自己의 本國에 알리

고 이와 같은 日帝의 暴壓政治에 對한 人類良識의
奮起를 促求하기에 이르렀다

美國教會聯合會協議會는 宣教師들의 報告書를
모아 冊子로 發刊 國會에 提出하는 一方 日本政
府에 對하여는 韓國人의 迫害中止와 行政改革
을 促求하는 同時에 國際的으로 世論을 불러 일
으켰다

堤岩里 教會堂內에서 被殺된 先烈들은

安政玉、安政麟、安鍾樂、安鍾燁、安鍾煥、安鍾
厚、安有淳、安武淳、安珍淳、安鳳淳、安慶淳、

安弼淳、安命淳、安官淳、安相銘、趙敬七、姜泰成、
同夫人金氏、洪元植同夫人金氏、洪淳晉、金正憲、
金德用等二十三名이다

二、古州里虐殺事件

一九一九年四月十五日(陰三月十五日)午後三時丰頃
堤岩里教會堂燒打殺事件이 있은 바로 그날 이
를 보고 미처 버린 倭軍 이리데들은 倭營과 日
軍 憲兵들을 合勢하여 곧장 그 길로 바로 堤岩
附近인 古州里로 달려 가서 古州里 全部落을
完全包圍하고 金興烈、金聖烈、金世烈、金周業

金周男、金興福等 六名을 밧줄로 結縛하여 甞山
으로 끌고 올라 가시 蠻刀로써 차례 차례로 목을
베고 亂刀질을 취 慘酷하게 죽였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와서 이 光景을
보려고 하면 事情 없이 칼로 목을 취 죽인다고
威脅하면서 못 보게 하였다

倭兵들은 六名의 屍體를 露積가리 까지 끌고
가시 불을 질러 露積과 屍體를 함께 불 살라
버렸다

이들 慘酷하게 殉死한 金興烈、金聖烈、金世烈

金周男、金周業、金典福等六名은 한 집안의 祖父
의 父親 그리고 兄弟間들이며 熱烈한 天道敎信
者로써 洞里의 指導的 役割을 擔當하여 왔으며
平素 倭寇들의 無理한 要求나 迫害에는 絶對
屈하지 않고 끝까지 抗拒하던 愛國志士들의 一
家로 指目하여 오던 터인 지라 倭寇들은 그러한
金氏一族을 全滅시켜 버릴 機會를 노리고 있었건
것이다

이와 같이 金氏一家族의 男子들이 全滅하는
中에서도 當年九歲인 金德基는 어린 나이에

祖父、父親、三寸等 六名이 全部 燒殺 當하는 光景
을 보고

나만 살면 될 해^ㄴ 같이 죽여라^ㄴ 하며 倭兵들
의 시늉이 이러^ㄴ 銃칼 속으로 뛰어 들며

왜^ㄴ 우리 집 어른들을 모두 죽이느냐^ㄴ 고 을부짚
으며 달려들자 魚慈悲한 倭兵 한 놈이 구두
발로 건어차기 을타리 밑 도랑으로 굴러 떨어지
자 金德基 少年은 몸을 일으켜 또다시 덤벼들
려하는 것을 그의 兄嫂되는 분이 金氏一族의
男孑라고는 金少年만이 唯一한 生存者라는 것을 깨

달고 金少年을 끌어당겨 치마폭에 감추어 간
신히 목숨을 건졌다

倭兵들의 蠻行에 激怒한 洞民들은 山上에 烽
火를 올리며 祖國의 自主獨立을 祈願하는 一方
倭兵들의 갖은 迫害에도 屈하지 않고 正面對抗
하여 끝까지 抗戰했다

堤岩里에서 二十三名 古州里에서 六名 都合 二十九名
이 殉死한 것으로서 이 歷史的史實은 一時 國
內는 勿論、國外까지 널리 報道되었고 韓國
에 長期 滞在하며 宣教하던 스코필드 博士께서

는 몸소 이 堤岩里 事件에 큰 關心을 갖이고 本
國 宣敎本部에 真相을 報告하여 全世界的으로 輿
論을 喚起시킨데 對하여는 위에서도 叙述하였
거니와 그 後로도 每年 三一節 行事에는 빠짐 없이
參席하여 先烈들을 길이 追慕하였다

八·一五 解放以後 우리 政府에서는 堤岩里 入口路
邊과 旧 敎會堂 자리에 各各 殉國 堤岩 二十九 先
烈의 三一獨立運動 紀念碑를 建立하기에 이르렀
다

如斯한 歷史的 史實에 비추어 保健社會部

에 設置된 殉國先烈審査委員會에서는 同二十九年
을 殉國先烈로 審査一選定케 되었으며 五·一六革
命以後 政府의 再審査를 거쳐 一九六八年三月一日
宇로 二十九先烈遺族들은

朴正熙 大統領閣下로부터 表彰狀을 받은 바 있다

三、發安警察官駐在所襲殺事件

그當時 堤岩里와 古州里에 隣接한 發安里에
는 警察官駐在所가 設置되어 갖은 變行을 초
行하여 왔으며 無辜한 白衣 겨레에 對해 迫
害를 加하였다